

다케코마이나라리 신사

셋타야 지구에 있는 이 이나라리 신사의 입구에는 신사를 대표하는 한 쌍의 여우상이 있습니다. 일반적인 암여우 대신 어미 여우와 새끼 여우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

언뜻 보면 어미 여우가 새끼 여우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, 전문가는 사실 그 반대의 의미를 지녔다고 지적합니다. 그 말은 즉 새끼가 어미를 쳐다보며 ‘엄마, 날 지켜줘. 내가 크면 엄마를 지켜줄게’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이러한 부모자식관계는 다른 신사나 일본 사회 전반에 통용되는 주제입니다.

다케코마이나라리 신사는 지역 사회의 자랑거리입니다.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신사에는 당연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. 이곳에서 기원하면 행운, 오곡 풍작, 장사 번성, 자식 순산 등이 찾아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